

반덤핑 PS인쇄판 재심사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지속 여부가 재심사된다.

산업자원부는 8월22일 개최된 제165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프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일본산 인쇄제판용 평면산 사진플레이트(PS인쇄판)에 대해 덤프관세 부과 재심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면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덤프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율은 24.51-38.16%이며, 부과기간은 1998년 1월7일에서 2002년 1월6일로 3년간이다.

1993년 11월8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PS인쇄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는 PS인쇄판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속출하자 1998년 11월13일 부과기한이 2002년 1월6일로 연장됐다.

2001년 현재 후지포토필름에 28.7%의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크롬재판에 38.16%, 기타에 24.5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00년 현재 PS인쇄판의 국내 시장 규모는 580만100㎡(328억5100만원) 수준으로, 국내 생산제품이 전체의 62.8%인 362만1000㎡를, 수입제품은 37.2%인 216만㎡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PS인쇄판 생산능력은 우리나라의 17배에 달해 국내산업보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는 한국아그파산업이며, 수입품을 대부분이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 한국지사, 대한인쇄협동조합연합회, 성도필름코퍼레이션 등 10여사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PS인쇄판 시장규모

(단위: 100㎡, 100만원, %)

구 분		1998	1999		2000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국내수요	수량	3 374	4 875	44.5	5 801	19.0
	금액	25 028	29 037	16.0	32 851	13.1
공급 수입	수량	1 258	2 134	69.6	2 160	1.2
	비율	37.3	43.8	-	37.2	-
	금액	8 535	10 782	-	-	-7.9
	국산	수량	2 116	2 741	26.3	9 930
	비율	62.7	56.2	29.5	62.8	-
	금액	16 493	18 255	10.7	22 921	25.6

<화학저널 2001/9/17>